

# 最近發刊된 韓國 어린이 雜誌의 分析

金 孝 貞\*

## <目 次>

- |                      |                         |
|----------------------|-------------------------|
| I. 序 言               | 2. 어린이 雜誌의 屬性           |
| II. 雜誌의 屬性           | IV. 最近發刊된 韓國 어린이 雜誌의 分析 |
| 1. mass media로서의 雜誌  | 1. 內容                   |
| 2. 雜誌의 機能과 屬性        | 2. 執筆과 編輯               |
| III. 어린이 雜誌의 屬性      | 3. 體裁                   |
| 1. 어린이의 發達要求와 어린이 雜誌 | V. 結 言                  |

## I. 序 言

「어린이가 읽고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의 要求와 興味에 알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 圖書」라고 美國 Arbuthnot女史는 일찍이 力說한 바 있다. 「圖書」란 生活이 즐거울 때는 삶에 대한 뜻을 깊게 해 주고 生活이 困窮할 때는 잠시나마 苦惱를 잊게 해주며 當面한 問題의 解決에 새로운 眼目(洞察力)을 갖게하고 必要한 休息을 提供해 주기도 한다.

圖書를 잘 利用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豊富한 知識과 즐거움을 갖게 되며 이 知識과 즐거움은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린이가 讀書하는 對象은 반드시 圖書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圖書가 아닌 여러 形態의 읽을 거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人類文化와 社會發展은 mass communication을 形成하고 그 media로 많은 資料를 創案하여 人間의 生活을 豊富히 하고 潤澤하게 發展시키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雜誌는 最新의 情報를 提供하는 mass media로 調查研究에 基本的인 資料

\*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 副教授

라고 할 수 있다. 初期의 雜誌는 少數의 學者와 政治家에게 book catalog를 定期的으로 紹介해 주는 것으로 시작되어 있다. 知識이 市民의 것으로 傳播되자 雜誌도 廣範圍하게 波及되어 왔고 17世紀에는 評論이 시작되어 18, 19世紀까지 유럽에서는 評論誌의 全盛期를 이루기도 하였다. 最近에는 時事誌 教養誌 專門誌 綜合誌 大衆誌로 多樣하게 發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舊韓末에 시작된 우리나라 雜誌만 하더라도 獨立思想의 鼓吹와 國民啓蒙을 큰 任務로 하였으며 日帝下에서는 民族精神의 기둥으로, 教養과 知識의 傳達로 國民의 앞장을 서 왔다. 解放後에는 外來文化의 影響을 받아서 廣範圍한 文化媒介役割을 이룩하며 興味와 娛樂를 주었던 것이다. 最近에는 日本雜誌를 模倣으로 模倣하고 發展하기도 하였으나 急激한 膨脹으로 業界의 無秩序와 記事의 非論理性이 社會의 物議를 적지 않게 차아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1965年 7月 「韓國雜誌倫理委員會」가 發足하여 雜誌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고 倫理面에서 不健全性을 自制함으로써 雜誌가 갖는 社會的 責任을 이루기도 하였다. 雜誌는 다른 mass media와 더불어 民族社會에 強力한 影響力을 가진 公器임은 自他가 公認하는 事實이 되어 왔다. 그러나 雜誌의 本來의 使命을 잊고 低俗하고 粗雜하게 엮어진 無責任한 編輯으로 말미암아 大衆이 雜誌를 不信하는 風潮도 造成되어 있다. 도리켜 보건대 解放을 前後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發刊된 어린이 雜誌는 여러 種類가 刊行되어 어린이의 生活에 많은 影響을 준듯하다.

筆者는 이러한 雜誌를 組上에 놓고 그 機能과 그 屬性을 體系的으로 밝히는 한편 어린이와 雜誌의 關係를 究明하여 올바른 理解와 知識위에서 現在 刊行되는 어린이 雜誌의 向方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筆者의 微力으로 現在 刊行되는 어린이 雜誌를 하나씩 檢討하면서 分析하지 못하고 더우기 그 內容의 깊이와 藝術的 價値를 全혀 分析의 對象에서 빼놓고 다만 痲疲의 要素인 客觀的 事項만을 對象으로하여 나름대로 調查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雜誌의 屬性

### 1. mass media로서의 雜誌

人間環境이 閉鎖的인 地域社會에서 開放社會로 擴大됨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넓은 意味의 mass com. 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mass communication에

서 視覺的 印刷資料인 雜誌는 現代生活에 重要한 情報源(information source) 이거나 情報媒體로 認定받고 있음이 事實이다.

「국어대사전」에 雜誌는 ‘號를 거듭하여 定期的으로 刊行되는 出版物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쓴 책’이라 밝혀있다. Britaenica에서 ‘雜誌’는 ‘定期刊行物’을 찾도록 指示해 주고 있다. ‘定期刊行物’이란 ‘一定한 期間內에 刊行되는 雜誌와 評論으로 mass communication의 一種이며 特定한 題號를 가지고 一定한 期間의 間隔을 두고 長期에 걸쳐 刊行되는데 每號가 印刷된 文學 繪畫 寫眞 등을 素材로 構成된다’고 되어 있다. 圖協編 圖書館用語集에 雜誌는 ‘一定期間을 두고 繼續的으로 番號를 이어 刊行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쓴 여러 內容의 出版物’이라 하고 定期刊行物은 ‘一定期間을 두고 同一誌名(때로는 變更도함)으로 卷號를 이어 繼續 發行되는데 여러 寄稿者의 論文이 記載된 出版物’이라고 하였다. 一定期間을 두고 號를 거듭하여 여러 사람이 쓴 內容이나 論文이 記載된 出版物이 雜誌에 대한 共通된 概念인 것이다. 그러나 흔히 混用되는 雜誌와 定期刊行物에는 僅少한 差異가 없지 않음이 事實이다.

歷史的으로 보면 定期刊行物(periodical)은 印刷術이 發明된 以後 16世紀에 나타난다. 처음에는 pamphlet로 시작 되어 17世紀에 와서 現代的 性格을 띄게 되었으나 18世紀에는 定期的 文獻(periodical literature), 定期的 出版物(periodical publication)이라는 形容詞로 使用되기도 하였다. 18世紀 以後에는 新聞以外的 定期 刊行物에 屬하고 있다. 雜誌는 Arabia의 Makhazine에서 由來되었으며 歷史的 意味는 store house, 即 知識의 倉庫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英國에서는 1731년에 發行된 Gentle men's magazine이 news 수필 기타 월등하거나 흥미있는 文學短篇을 담은 用器(읽을 거리, 讀書資料)로서 計劃된 것이었다.<sup>1)</sup> 따라서 雜誌의 처음 形態는 內容에 대해서 文字만으로 쓰여졌으나 現代感覺이 添加되면서 挿畫도 包含되고 여러 가지 說話 記事 隨筆 其他資料를 모아서 定期的으로 刊行하기 시작한 것이다. 雜誌가 定期的으로 刊行되기에 ‘定期刊行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日誌(Jour-

1) Gate, J.K. Guide to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New York, McGraw-Hill, 1967, p.87.

nal)도 定期的으로 出刊되기에 ‘定期刊行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概念으로 보면 雜誌 日誌 定期刊行物이 混用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獨逸의 Lehmann, E.H.는 일찌기 ‘雜誌는 規則的으로 發行하는 印刷物로 無制限한 持續의 意圖를 가지고 그날 그날 일어난 事件을 于先的으로 取扱하지 않으며, 어떤 專門分野에 있어서의 最新事件만을 取扱한다. 個個의 雜誌는 그 內容으로나 印刷技術로 매우 多樣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持續的으로 繼續하는 順序와 똑 같은 程度로 密接한 精神的 指導에 의하여 생기는 內的, 外的 統一을 나타내 보인다. 雜誌는 대개 制限된 問題領域을 위하여 서만 그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그 公示性的 넓이는 가지가지다. 雜誌는 그 形成을 이루는데 있어서 널리 散在해 있는 讀者圈의 要求에 對應해야 한다’<sup>2)</sup>고 밝힌 바 있다.

以上을 綜合해 볼 때 雜誌는 여러 寄稿者들의 여러 內容을 실고 冊子로 製册된 各種 機關의 刊行物로서 定期的으로 出版되나 豫定되지 않은 限界를 가지고<sup>3)</sup> 刊行되는 mass communication의 重要한 media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規定은 雜誌의 機能과 屬性을 充分히 밝혀 놓은 것은 아닌듯 하다.

## 2. 雜誌의 機能과 屬性

1908년에 內容과 體裁面에서 本格的인 雜誌로 刊行된 「少年」<sup>4)</sup>을 비롯한 우리 나라 雜誌는 日制下의 同人誌였고, 解放以後 商業誌를 거쳐 最近에는 大衆娛樂誌가 盛行하고 있다. 이것은 雜誌의 使命感도 歷史의 흐름과 時代的背景에 따라 變貌<sup>5)</sup>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雜誌는 文化事業으로 成長함과 同時에 公共性和 商業性이 內包된 企業으로 發展되고 있는 것이다.

mass media는 情報나 知識傳達, 하나의 意見傳達 및 娛樂提供의 一般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嚴密히 檢討해 보면 報道的, 指導的, 教育的, 娛樂的, 廣告的 機能이 雜誌의 機能이라 하겠다.<sup>6)</sup>

報道的 機能은 mass media가 갖는 가장 重要한 機能으로 새로운 事業을 널리 公衆하는 任務인 것이다. 初期 雜誌인 英國의 Gentle man's Magazine

2) Lehmann, E.H. Einführung in Die Zeitschriftenkunde, 1936.

3) London, T. Encyclopedia of Librarianship, Chicago, A.L.A., 1961. p. 275.

4) 魚孝善. 韓國兒童誌 60年, 世代, vol.6, no.3 p.401.

5) 金東喆. 韓國雜誌의 社會責任, 世代, vol.6, no.10, p.244.

6) 崔俊. 雜誌機能論. 世代. vol.6, no.7, p.305.

이 1731년 news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雜誌의 報道性은 일찍부터 認定받은 것이 明白하다. 勿論 新聞과 같은 時事性은 稀薄하다 하겠으나 그때 그때의 認識된 時事問題를 報道하거나 다시 解說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다. 비록 新聞만큼 社會的 事件이나 news에 敏感하지는 못하였다 할지언정 그 社會의 潮流를 充分히 反映하고 報道하는 데에는 더 할나위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指導的 機能은 時事問題, 關心있는 主題의 解說, 論評 및 評論을 통해 새로운 方向과 現實의 誤謬를 暗示하여 바람직한 方向으로 善導할 수 있음을 일컫는다. 獨逸의 Lehmann, E.H.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規則적으로 繼續 刊行되기에 連續되는 것과 같은 密接한 精神의 指導에 의하여 內的, 外的, 統一性이 雜誌에 나타나고 있다’ 하였다. 우리 나라 初期의 雜誌들이 民族誌로 民衆을 啓蒙指導하였고 日帝時의 雜誌들은 우리의 한 글울 지켜왔고 解放後에는 글울 가르치는 指導的 구실을 해온 것<sup>7)</sup>으로도 立證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輿論을 形成하였고 善導해 나가는 곳에서는 社會의 未來를 豫見하는 先驅의 叡智가 必要하다. 이것은 오늘의 社會를 冷澈히 分析 把握하는 것으로 雜誌가 맡고 있는 重要한 任務의 하나인 것이다.<sup>8)</sup> 또는 雜誌의 社會觀, 世界觀은 곧 讀者 個人의 社會觀, 世界觀 乃至 人生觀의 定立에 指導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的 機能은 讀者 個人이 雜誌를 통해서 自己의 發展課程을 摸索해 나가도록 引導해 주려는 데 있다. 1929年 日本의 「中央公論」 卷頭言에 「清濁을 가려 가며 우리의 視野에 들어오는 한, 일일이 이에 檢討를 게을리하지 않음이 우리의 임무」라고 闡明한 것은 이 機能을 瞭然히 代辯한 것이라 하겠다. 雜誌가 「最近의 情報나 知識을 提供하는 貴重한 資料가 된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 雜誌를 통해서 讀者는 間接的으로 經驗을 얻고 이로 因하여 直接的인 經驗을 體驗하게 하며 바르게 思考하는 指導를 받게 된다. 雜誌의 豫見과 主張은 讀者에게 주는 說得力이 매우 强하다.

7) 高廷基. 韓國의 女性誌 60年, 世代. vol.6, no.4, p.400.

8) 魚孝善. op. cit. p.406.

9) 高廷基. op. cit. p.401.

娛樂的 機能은 雜誌가 文化 藝術의인 것은 勿論 娛樂의인 敘述에 많은 面을 割愛하므로 敘述內容이 娛樂의인 것 뿐아니라 「읽는 다」는, 또는 「본다」는 行爲自體가 娛樂이 되고 있다. 이 가벼운 讀書에 雜誌의 魅力이 있다는 것이다. 解放以後 우리 나라의 雜誌는 外來文化의 影響을 받아서 廣範圍한 文化의 媒介의 役割을 하며 興味와 娛樂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sup>10)</sup> 1665年 佛의 Denys de Sall가 發刊한 Journal des Scavans는 新刊書籍의 拔萃와 紹介를 主로 하여 책임기를 願하되 못읽는 사람을 위하여 發刊하였다는 것과 現代 雜誌가 娛樂誌로 細分되는 것으로도 雜誌의 娛樂的 機能은 立證된다고 할 수 있다.

廣告的 機能은 雜誌가 公開의 發行으로 公示性이 크므로 認定받는 機能이다. 17世紀에 시작된 雜誌는 小數의 學者와 政治家에서, 知識과 情報를 必要로 하는 一般大衆에게로 廣範圍하게 傳播되어 가면서 mass media로 確認되어 왔다. 따라서 廣告의 效率性이 높은 것은 當然한 일이다. 美國에서 雜誌의 廣告收入이 全體의 70%, 日本에서는 50%임은<sup>11)</sup> 公認된 事實이다.

讀者에게 情報과 知識, 娛樂을 提供하며 論旨를 通해 指導, 教育하는 雜誌의 屬性은 아홉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난다.<sup>12)</sup> 첫째는 定期的 發行이다. 社會가 時時刻刻 變化하고 週期的 結果를 必要로 하기에 雜誌의 繼續的 定期性이 나타나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雜誌는 定期刊行物임이 明白한 事實이다. 둘째는 機械的 複製物이다. 同一한 內容과 形態를 機械文明에 힘입어 大量으로 刊行한 다는 것이다. 셋째는 公開的 發行이다. 일찌기 17世紀부터 넓게 大衆에게 普及되었기에 客觀的 內容을 記述하고 大衆의 意見, 大衆에 대한 把握力이 內包되어 있어 公示性이 큰 것이다. 넷째는 內容의 多樣性이다. 여러 著者의 여러 內容이라는 觀點에서와 같이 各色인 '雜'의 內容인 '誌'가 모여 여러 읽을 거리를 Department같이 記載하고 있다. 모든 主題를 다루고 한 主題에 잘 알려진 다른 사람들의 여러 意見을 모우고 있는 刊行物이다.<sup>13)</sup> 다섯째는 觀念의 一般性이다. 가장 넓게 大衆에게 普及되며 그 內

10) 金東浩. Ibid. p.244.

11) 廣告上의 諸問題. 韓國雜誌總覽. 서울, 한국잡지협회, 1973. p.115.

12) 崔 俊. op. cit. p.305~7.

13) Santa, B.M. How to Use the Library, California, Pacific, 1955. p.44.

필요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雜誌는 限界點을 豫定할 수 없는 範圍에서 內容을 充足시킬 수 있는 素材의 選擇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많은 大衆을 相對로 하기에 mass media에 記載되는 內容의 劃一性이 높아지며<sup>14)</sup> 一般性이 同時에 向上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現實性이다. 雜誌에는 時間의 現實性과 素材의 現實性이 있다. 前者는 되도록 빨리 報道傳達하는 것이요, 後者는 새로 關心을 일으켜 지난날의 事實에 關係된 것이나 過去일에 대해 現在的인 意義를 主張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雜誌의 評論, 解說, 論旨를 通해 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곱째는 經濟的 企業性이다. 專門的인 職業에 의해 만들어지고 營利的 企業인 經濟的 企業으로 運營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後者가 前者를 앞질러 그 調和를 잃었을 때 低俗한 大衆誌가 되는 것은 勿論이다. 여덟째는 記錄性이다. 活字, 插畫寫眞으로 記錄物을 남기며 意思傳達를 容易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保存性이다. 冊子로 製冊이 되어 簡便하게 永久히 保存되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雜誌의 性格에 의해서 雜誌의 類型은 多様하지 않을 수 없다. 初期의 news와 읽을거리로 시작하여 敎養誌, 評論誌, 文藝誌, 專門誌, 一般誌, 綜合誌, 大衆誌, 娛樂誌로 發展變貌하여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綜合誌는 人文, 社會, 自然의 모든 科學을 網羅하여 구며지고 指定社會가 아닌 一般社會에 廣布되고 執筆者도 限定되지 않은 範圍에서 讀者도 男女老少 區別없이 읽혀야 하며<sup>15)</sup> 多彩로운 內容을 綜合하고 그 內容의 深刻度도 있어야 하며 批評과 評論, 理念에 重點을 두어 民主社會建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現代大衆社會에 있어서 大衆의 餘暇와 時間을 捕捉함에 足한 娛樂的 內容을 실리고 많은 讀者의 關心을 獲得하므로써 營利的 企業의 成功을 企圖하는 大衆誌가 있다. 最近 우리 나라의 어린이 雜誌는 單純한 大衆誌이기 보다는 綜合誌의 性格을 더 짙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Ⅲ. 어린이 雜誌의 屬性

#### 1. 어린이의 發達要求와 어린이 雜誌

14) 高明植. 韓國저널리즘의 將來. 世代, vol.6, no.11. p.359.

15) 河東鎭. 韓國의 宗教誌 60年. 世代, vol.6, no.2. p.405.

다. 이 成長發達이란 個人的 生涯中에서 어떤 特殊한 時期에 나타나 그 課業을 훌륭히 成就하면 幸福을 누릴 수 있고 後日에 겪게 될 다른 課業도 잘 치뤄 나가게 된다. 그러나 만일 失敗하면 個人的으로 不幸을 招來할 뿐 아니라 社會의 認定도 못받고 後日에 겪게 될 다른 課業도 잘 치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는 이 成長發達課業이 가장 많이 盛行하는 無限한 可能性의 時期이다.<sup>16)</sup> 특히 知覺 및 運動機能의 發達, 情緒的, 社會的 發達, 言語와 知能의 發達이 뚜렷한 時期이다.<sup>17)</sup> 知能이 發達함에 따라 知覺의 統合은 概念化되어 가며 이와 같은 發達課業은 讀書, 數概念 등에서 效果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個人이 全生涯를 通해 不斷한 教育을 받는다(發達課業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讀書의 重要性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讀書을 通해 넓은 生活經驗을 가진 個人은 人生에 대한 視野가 넓음으로 事物에 대한 理解와 判斷이 빠르고 正確하며 그만큼 幅넓고 有能한 人間으로 成長하며 自信을 갖고 人生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넓고 豊富한 生活經驗을 習得하고 擴充하기 위한 手段은 多樣하므로 모든 境遇 直接的인 經驗을 通해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生活經驗의 一部 혹은 大部分을 間接經驗에서 메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 媒介가 되는 것이 圖書와 新聞雜誌 및 其他 mass media인 것이다. 讀書에서 얻은 知識이 實生活에서 얻은 그것과는 對峙될 수 없는 것이나 多樣하고 豊富한 經驗을 提供함은 事實이다. 어린이 讀書資料는 특히 어린이 要求에 맞추어 만들어져야만 한다. 어린이가 읽고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의 興味와 要求에 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어린이 圖書이다.<sup>19)</sup> 讀書가 삶을 潤澤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生活이 재미있을 때 圖書는 우리 삶에 대한 뜻을 더욱 깊게 해주며 生活이 困窮에 處했을 때 圖書는 잠시나마 苦惱를 잊게 하고 當面한 問題에 대하여 새로운 洞察力(眼目)을 갖게하며 必要한 休息을

16) Havighurst, R.J. 金在恩譯.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서울, 배영사, 1965, p.5.

17) 尹泰林. 心理學概論.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7, p.65.

18) 金京一. 學習能率向上을 위한 讀書指導의 技術.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0. p.10.

19) Arbuthnot, M.H. Children & Book, Chicago, Scott-Forseman, 1947, p.2.



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이는 成人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어린이는 讀書資料에서 ① 物質, 情緒, 知識, 精神的으로 安全하려는 要求 ② 사랑을 주고 받으려는 要求 ③ 成人, 親戚, 集團에 屬하려는 要求 ④ 人間行動에 힘이 되는 成就要求 ⑤ 單調로운 일에 倦怠를 느낄 때 잠시 벗어나 休息하는 變化에 대한 要求 ⑥ 無限한 好奇心에 대한 要求 ⑦ 아름다움에 대한 要求를 充足시킨다<sup>20)</sup>는 것은 어린이 圖書의 意義를 再確認시키는 것이다. 어린이는 항상 成長發達하고 한편으로는 變化를 要求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린이 讀書資料는 반드시 圖書만일 수는 없는 것이다.

비싼 圖書대신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圖書보다 가벼이 읽을 수 있는 것, 讀書興味誘發을 위해 圖書가 아닌 것에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어린이 圖書가 아닌 讀書資料로 어린이의 關心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어린이 雜誌이다. 어린이가 圖書에만 集中할 수 없기에 雜誌에 대한 關心은 대단한 것이다. 매일의 밥상에 vitamin이 있는 것 같이 讀書資料에서 雜誌는 除去될 수는 없는 要素라고 본다.<sup>21)</sup> 어린이의 要求와 興味에 關聯해서 均衡이 잡힌 讀書를 行하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必要한 讀書資料가 어린이 雜誌라 할 수 있다.

## 2. 어린이 雜誌의 屬性

社會的, 時代的 要求와 어린이 發達要求에 따라 變貌하고 있는 어린이 雜誌는 圖書보다 經濟的 負擔이 적고 繼續 刊行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親近感을 持續시키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最近 우리 나라 어린이 雜誌의 利用도가 全體의 資料에 比해 46.28%로 나타나고 있다.<sup>22)</sup> 여기서 어린이 雜誌의 概念을 確立하기에 앞서 어린이가 언제나 興味로워하는 雜誌의 內容은 檢討한 價値가 있다고 본다. 19世紀 어린이 雜誌는 主로 교육의 普及에 의해 어린이에게 文學을 紹介하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는 外國童話의 紹

20) Arbuthnot, M.H. op. cit. p.4~10.

21)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Chicago, ALA. 1947, p.175.

22) 어린이서관도서관 유별 圖書利用統計에서 總數4,396卷中 新聞雜誌 利用數 2,035卷을 基礎로 算出.

娛樂의 機能은 雜誌가 文化 藝術的인 것은 勿論 娛樂的인 敘述에 많은 면다. 이 成長發達이라 個人의 生涯中에서 「어린」과 少年의 生活의 內容이고 「아이生活」은 宗教的인 것, 童話 童謠, 歷史, 세상구경, 文學과 一般 敎養記事가 主로<sup>23)</sup> 실리었다. 日本에서 어린이 娛樂雜誌는 慢畫가 大部分이 있으며 附錄도 慢畫이다.<sup>24)</sup> 美國은 自然, 小說, 새로운 兒童文學, 여러 實用的 暗示로 構成되기도 한다. 어린이 雜誌는 虛構的인 記事보다는 좀 더 生 生한 記錄을 重視하는 Information 위주의 刊이 讀者의 關心을 모으게 되어 寫眞 畫報 등이 큰 比重을 차지하며 「읽는 雜誌」에서 「보는 雜誌」로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Wofford는 어린이 雜誌의 內容을 어린이 圖書에서 拔萃한 이야기, 詩, 여러 종류의 수수께끼, 무슨 일을 하도록 하는 暗示, 오리기, 색칠하기, 科學이나 自然 또는 著名人에 관한 記事, 독자들 차지를 포함시켰다.<sup>25)</sup> 이는 內容의 多樣性을 代表하는 것으로 어린이 雜誌에서 적어도 準備되어야 할 內容인 것이다. 電子 media가 發達해도 印刷 media인 文學의 必要를 없앨 수 없다는<sup>26)</sup> 것과 같은 理致라 하겠다. 어린이 雜誌는 다른 資料에서 찾을 수 없는 많은 情報과 知識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여러 目的에서 읽게 된다.<sup>27)</sup> 어린이는 娛樂을 위해, 學習活動의 參考資料로 宿題하기 위해 雜誌를 읽게 된다<sup>28)</sup> 고 보는 것이다.

어린이 雜誌는 簡單히 말해서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실고 冊子로 製冊된 定期刊行物이라 하나 嚴密히 살펴보면 어린이 成長發達에 必要한 모든 主題를 잡고 興味롭게 最新의 記事로, 그 主題分野에서 잘 알려지고 固定되지 않은 執筆陣을 通하여 보다 正確히 優秀한 內容을 모아 記事, 寫眞, 그림으로 꾸며 定期的으로 發行하는 mass media의 一種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雜誌의 機能은 一般雜誌의 機能인 報道的, 指導的, 敎育的, 娛樂的, 廣告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특히 娛樂的 機能과 指導的, 敎育的 機能이 잘 調和될 때 어린이 成長發達課業을 바람직하게 補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雜誌의 性格은 앞에서 밝힌 아홉가지의 雜誌屬性에서 다음 事項을 더

23) 魚孝善. op. cit. p.404.

24) 小河內芳子. 兒童圖書館. 東京, J.L.A. 1967, p.77.

25) Wofford, A. Book Selection for School Library. New York, Wilson, 1962. p.199.

26) 高麗植. op. cit. p.358.

27) Standards for Schol Libraries Program, A.L.A., 1960. p.78.

28) Wofford, A. op. cit. p.195.

強調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雜誌는 限界點을 豫定할 수 없는 定期刊行物이어야 한다. 어린이는 變化에 대한 要求로 기다림에 魅力을 느끼며 興味에 刺戟을 받으려 거기에 그들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內容의 多樣은 主題의 Department的인 것과 함께 執筆陣이 固定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서 成長期 어린이에게 폭 넓은 間接的인 經驗을 提供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各界各層의 어린이 讀者를 對象으로 하기에 多樣한 內容에서 一般性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專門分野라 불려 觀念的인 一般性, 劃一性이 있어야 넓은 讀者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時間의 現實性은 되도록 빨리 知識과 情報을 提供하는 일이며 素材의 現實性은 새로운 關心과 興味를 일으켜 過去의 일에 現實性을 부여하는, 累積되었던 素材라도 現實的 感覺을 造成하는 性格이다. 累積된 모든 知識을 自己化하며 成長하는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必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어린이 雜誌는 專門的 職業으로 만들어 經濟的 企業으로 運營해야 한다. 어린이를 더 바람직하게 키우려는 父母와 成人의 欲望을 利用하여 文化性보다 營利的 經營의 妙를 쉽게 살리는 것은 어린이에게 淺薄한 讀書物인 大衆娛樂雜誌가 되는 것이다. 文化와 經營의 妙를 다하여 文化의 創造, 知識의 傳達的인 使命感을 企業보다 萎縮되지 않게 하는 것이 成長期의 어린이에게 豊富하고 切實한 讀書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된다.

#### N. 最近發刊된 韓國 어린이 雜誌의 分析

19世紀末에 頭角을 나타낸 韓國 어린이 雜誌는 주로 教育의 普及에 의해서 發展되었다. 1912年, 「붉은 저고리」(Tabloid版, Semi-monthly)가 「공부거리와 놀이감의 화수분」이란 Catching phrase로 어린이 敎養을 위해<sup>29)</sup> 1923年, 「어린이」는 少年文化運動, 兒童文學運動誌로 1926年, 「아이생활」은 基督敎傳道誌, 兒童文學誌로 1946年, 「小學生」과 1952年, 「새벗」이 兒童文學의 發表誌<sup>30)</sup>로 刊行되어 왔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 刊行되는 어린이 雜誌는 아홉 種<sup>31)</sup>이나 中學生을 對象

29) 魚孝善. op. cit. p.401.

30) 李在徵. 兒童文學概論. 서울, 文運堂, 1968. p.69.

31) 『國內雜誌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雜誌總覽, 서울, 한국잡지협회, 1973. p.109.

으로 한 것과 漫畫만을 실고 있는 「만화세계」를 除하면 敬成천주교회·유지재단 소년출판부에서 1960년부터 發行되는 「소년」, 새소년社에서 1964부터 發刊된 「새소년」, 소년세계사에서 1966년부터 發刊하는 「소년세계」, 中央日報社에서 1968년부터 發行하는 「소년中央」, 옥영재단에서 1968년부터 發刊하는 「어깨동무」의 5種이다. 1973年 1年間의 雜誌中 편의상 3, 6, 9, 12月號만을 擇하여 「內容」「執筆과 編輯方向」「雜誌의 形態」別로 나누어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內容

雜誌의 內容은 多様하고 Department的이다. 어린이 雜誌의 目次에 의한 內容은 news, 學習 및 教養, 文學, 그림이야기, 漫畫, 취미오락, 廣告, 其他로 區分될 수 있다. news는 原色畫報, 單色畫報로 나타나 있고 學習 및 教養에는 便宜上 社會, 國語, 自然, 道德, 其他(美術, 體育)를 모았다. 文學에는 읽을거리로 認定받는 小說, 童話(創作童話도 包含) 童詩, 童謠, 名作物이 모아졌고 그림이야기에는 原色畫報의 插畫를 넣은 世界名작이나 插畫가 全體面의 1/3을 차지하는 것을 모았다. 漫畫에는 明郎, 人氣, 歷史, 戰爭, 스포츠, 冒險, 純情, 怪奇, 옛이야기의 漫畫를 綜合한 것이다. 趣味 娛樂에는 깔깔박사, 수수께끼, 휴게실, 상타기, 놀이, 相談을 한데 모았고 其他에는 愛讀者의 通信, 雜誌社의 公告 등을 모은 것이다.

「소년」은 [表1]과 같이 news가 全體의 4.86%, 學習과 文學이 各各 34.72%, 漫畫가 14.58%이며 漫畫의 內容이 健全하고 著名한 漫畫家의 作品 또는 創作兒童文學에 많은 比重을 두었고, 廣告는 없으나 畫報가 單色으로 뚜렷하지 못하다. 보는 「雜誌」보다 읽는 「雜誌」로 時代에 뒤진듯하나 讀者와 迎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새소년」은 [表2]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漫畫가 53.13%를 占하였고, 甚至於 많은 때는 勿驚 57.10%나 되었다. 그에 비해 學習과 文學은 12.57% 內外이고 12月號에는 童話가 없었다. 그림이야기 8.29%를 漫畫에 合치면 61.42%의 比率이 되나 news는 1.14%뿐으로 「보는 雜誌」에서도 企業化된 大衆 娛樂誌의 性格을 띠고 있다. 漫畫의 內容이 讀者의 興味에만 迎合되어 內容의 多様性이 偏重되고 觀念的인 一般性이 缺如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大衆

娯樂慢畫誌에 가까운 것이다.

[表 1] 소년

항 목	월 별	3	6	9	12	平均
뉴 스		8 ( 6.17)	7 ( 4.35)	6 ( 3.95)	7 ( 4.83)	7 ( 4.86)
학 습 교 양	국 어	21 (16.21)	22 (13.65)	20 (13.16)	21 (14.49)	
	사 회	12 ( 9.36)	13 ( 8.00)	14 ( 9.22)	13 ( 8.95)	
	기 타	16 (12.35)	16 ( 9.99)	16 (10.52)	17 (11.73)	
	計	49 (37.92)	51 (31.64)	50 (32.90)	51 (35.17)	50 (34.72)
문 학	시	5 ( 3.87)	3 ( 1.86)	5 ( 3.28)	4 ( 2.76)	
	동 화	19 (14.66)	30 (18.62)	28 (18.42)	32 (22.05)	
	동 극	5 ( 3.87)	—	—	—	
	소 설	17 (13.14)	18 (11.16)	19 (12.51)	17 (11.73)	
	計	46 (35.54)	51 (31.64)	52 (34.21)	53 (36.54)	50 (34.72)
만 화		16 (12.45)	22 (13.75)	23 (15.11)	22 (15.18)	21 (14.58)
오 락		10 ( 7.92)	10 ( 6.21)	7 ( 4.61)	12 ( 8.25)	7 ( 4.86)
기 타		—	20 (12.40)	14 ( 9.22)	—	9 ( 6.26)
총 면 수		174 (100)	194 (100)	196 (100)	196 (100)	144 (100)

※ ( ) 는 全面數에 對한 百分比임.

「소년세계」는 [表 3]과 같이 慢畫가 全體의 50.84%를 占하고 있으며, 3月號는 62.10%로 最高이다. 學習은 12.14%, 文學은 18.07%, news는 0.89%, 6.51%의 그림이야기를 慢畫와 合치면 57.35%가 된다. 이런 點으로 보면 철저하게 보는 雜誌의 性格을 띄고 있으나 畫報아닌 低俗한 慢畫와 插畫를 插入했을 뿐이다. 童詩는 各號마다 하나도 실리고 있지 않았다. 더욱 慢畫의 內容이 俗된 慢畫貸本所의 것과 區別하기 어려움도 록 되어 있다. 어린이의 興味에 맞는 大衆娯樂誌나 어린이의 讀書에 대한 興味를 沮害할 우려가 濃厚하였다.

「소년中央」은 [表 4]에서 news가 1.55%로 가장 적고 慢畫가 28.60%로 가장 많다. 그림이야기 7.15%를 합치면 35.75%로 나타난다. 學習이 19.2%, 文學이 16.76%로 比較的 內容이 多樣하게 分布되어 있으나 廣告가 15.83%를 占하고 있다. 더욱이 3月號에 14%, 9月號에 16.82%, 12月號에 17.67%로 增加되고 있는 傾向은 廣告를 「보는 雜誌」로 錯覺하고 있는 現象이다. 童詩 童話를 一篇씩 넣어 어린이 綜合誌의 面貌를 갖추고 있으나 學習과

文學에 비해 慢書와 廣告의 量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每號마다 附錄이 4~7種을 收錄하고 있는 것은 그 內容의 優秀性을 誇示하고 있다해도 지나친 感이 없지 않다.

[表 2] 새소년

항 목	월 별	3	6	9	12	平均
뉴 스		4 ( 1.54)	6 ( 1.48)	2 ( 0.70)	4 ( 1.28)	4 ( 1.14)
학 습 교 양	사 회	10 ( 2.62)	26 ( 6.44)	8 ( 2.44)	17 ( 8.42)	42 (12.00)
	자 연	16 ( 4.20)	16 ( 4.20)	24 ( 7.32)		
	기 타	10 ( 2.62)	11 ( 2.88)	15 ( 4.57)	15 ( 4.95)	
	계	36 ( 9.44)	53 (13.44)	47 (14.33)	32 (10.29)	
문 학	소 설	38 (10.00)	32 ( 8.40)	38 (11.68)	31 ( 9.97)	44 (12.57)
	동 시	1 ( 0.26)	1 ( 0.26)	1 ( 0.31)	1 (10.32)	
	동 화	9 ( 2.36)	9 ( 2.36)	16 ( 4.88)		
	계	48 (12.62)	42 (10.64)	55 (16.77)	32 (10.29)	
그림이야기	25 ( 6.32)	31 ( 7.66)	31 ( 9.85)	30 ( 9.65)	29 ( 8.29)	
만 화	218 (57.10)	196 (52.66)	161 (48.50)	168 (53.27)	186 (53.13)	
퀴 즈	6 ( 1.48)	6 ( 1.48)	6 ( 1.83)	6 ( 1.93)	6 ( 1.72)	
광 고	15 ( 4.24)	14 ( 3.68)	12 ( 3.66)	16 ( 5.14)	14 ( 4.00)	
기 타	28 ( 7.28)	32 ( 8.50)	14 ( 4.36)	25 ( 8.15)	25 ( 7.15)	
총 면 수	380 (100)	380 (100)	328 (100)	313 (100)	350 (100)	

[表 3] 소년세계

항 목	월 별	3	6	9	12	平均
뉴 스		4 ( 0.92)	4 ( 1.26)	2 ( 0.63)	—	3 ( 0.89)
학 습 교 양	사 회	32 ( 7.36)	22 ( 6.92)	16 ( 5.05)	13 ( 4.72)	41 (12.14)
	자 연	4 ( 0.92)	22 ( 6.92)	24 ( 7.56)	10 ( 3.62)	
	국 어	—	6 ( 1.89)	6 ( 1.89)	6 ( 2.18)	
	기 타	—	—	2 ( 0.63)	—	
계	36 ( 8.28)	50 (15.72)	48 (15.11)	29 (10.52)		
문 학	소 설	60 (13.82)	54 (16.94)	58 (18.31)	45 (16.31)	61 (18.07)
	동 화	9 ( 2.08)	5 ( 1.57)	5 ( 1.58)	7 ( 2.54)	
	계	69 ( 15.9)	59 (18.52)	63 (19.89)	52 (18.85)	
그림이야기	24 ( 5.53)	22 ( 6.92)	20 ( 6.32)	20 ( 7.25)	22 ( 6.51)	
만 화	265 ( 62.1)	152 (47.66)	142 (44.82)	131 (47.44)	172 (50.84)	
광 고	15 ( 3.51)	11 ( 3.63)	16 ( 5.03)	18 ( 6.52)	15 ( 4.44)	
기 타	25 ( 5.76)	20 ( 6.29)	26 ( 8.2 )	26 ( 9.42)	24 ( 7.11)	
총 면 수	434 (100)	313 (100)	317 (100)	279 (100)	338 (100)	

「어깨동무」는 [表5]에서 news 가 1.61%로 가장적고 漫畫가 27.02% 學習이 25.04%, 原色名作을 文學에 合치면 22.98%로 內容의 多樣性和 雜誌의 指導的, 教育的 機能과 娛樂的 機能을 試圖하려는 編輯에 苦衷이 나타나고 있다. 漫畫의 內容이 「소년」과 「소년中央」의 中間 位置를 占한 健全한 漫畫도 包含되어 있다. 創作童話와 童詩가 새롭게 發表되고 學習에서 各教科를 高루 配定하고 있으나 學習誌의 性格보다는 綜合的인 教養中心의 內容이다.

[表 4] 소년중앙

항 목	월 별	3	6	9	12	平均
뉴스		4 ( 1.26)	5 ( 1.55)	7 ( 2.14)	6 ( 1.86)	5 ( 1.55)
학습교양	국 어	8 ( 2.51)	8 ( 2.48)	8 ( 2.44)	8 ( 2.48)	
	사 회	13 ( 4.09)	7 ( 2.17)	10 ( 3.05)	12 ( 3.27)	
	자 연	37 ( 11.65)	25 ( 7.85)	30 ( 9.15)	28 ( 8.68)	
	도 덕	9 ( 2.82)	9 ( 2.79)	9 ( 2.74)	13 ( 4.03)	
	기 타	3 ( 0.94)	4 ( 1.24)	5 ( 1.53)	4 ( 1.24)	
계	70 ( 22.01)	53 ( 16.53)	62 ( 18.91)	65 ( 20.15)	63 ( 19.25)	
문 학	명 작	—	—	8 ( 2.44)	7 ( 2.17)	
	소 설	42 ( 13.22)	51 ( 15.91)	45 ( 13.77)	29 ( 8.99)	
	동 시	1 ( 0.31)	1 ( 0.32)	1 ( 0.36)	1 ( 0.35)	
	동 화	4 ( 1.26)	8 ( 2.50)	8 ( 2.44)	8 ( 2.48)	
계	(14.79)	60 ( 18.71)	62 ( 48.91)	45 ( 13.95)	54 ( 16.76)	
그림이야기	21 ( 6.61)	24 ( 7.04)	21 ( 6.42)	24 ( 7.44)	23 ( 7.15)	
만 화	93 ( 29.20)	96 ( 26.95)	93 ( 28.44)	87 ( 26.97)	92 ( 28.6)	
퀴즈 오락	18 ( 5.66)	16 ( 4.99)	14 ( 4.28)	16 ( 4.96)	16 ( 4.97)	
광고	45 ( 14.17)	45 ( 14.04)	55 ( 16.82)	57 ( 17.67)	51 ( 15.83)	
기 타	20 ( 6.30)	21 ( 6.54)	13 ( 3.96)	22 ( 6.82)	19 ( 5.89)	
총 면 수		318 (100)	320 (100)	327 (100)	322 (100)	322 (100)

[表 6]에는 위의 各 雜誌의 平均値를 比較시킨 것이다. 學習과 文學量이 많은 것은 「소년」이고, 漫畫는 「새소년」과 「소년세계」로 娛樂漫畫誌이나 內容은 「소년세계」가 더 未浴하다 하겠다. 「소년中央」의 廣告는 最高量이고 原色 廣告가 大部分이어서 廣告의 受入은 많겠으나 主客이 顛倒된 錯覺을 이르게 한다. 「어깨동무」는 어린이 綜合誌의 性格을 나타내려 하였으나 未浴하고 「소년中央」은 「어깨동무」와 類似하나 企業的 屬性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5] 어깨동무

항 목 \ 월 별	3	6	9	12	平均	
뉴 스	6 ( 3.00)	4 ( 1.51)	—	5 ( 1.91)	4 (1.61)	
학 습 교 양	국 어	—	4 ( 1.51)	4 ( 1.55)	6 ( 2.29)	63 (25.4)
	사 회	24 (12. 0)	25 ( 9.36)	18 ( 6.82)	25 ( 9.53)	
	자 연	23 (11. 5)	23 ( 8.75)	24 ( 9.09)	10 ( 3.82)	
	도 덕	11 ( .51)	20 ( 7.52)	22 ( 8.32)	13 ( 4.96)	
	계	58 (29.00)	72 (27.05)	68 (25.78)	54 (20.64)	
문 학	소 설	34 ( 7.00)	28 (10.50)	20 ( 7.56)	17 ( 6.44)	40 (16.72)
	동 화	26 (13.00)	10 ( 3.76)	7 ( 2.69)	14 ( 5.35)	
	동 시	1 ( 0.5)	1 ( 0.37)	1 ( 0.37)	1 ( 0.38)	
	계	61 (30.50)	39 (14.63)	28 (10.52)	32 (12.17)	
원색명작	16 ( 8'00)	18 ( 6.77)	22 ( 8.31)	14 ( 5.35)	17 ( 6.86)	
만 화	24 (12.00)	84 (32.37)	84 (31.82)	72 (27.48)	67 (27.02)	
취미오락	12 ( 6.00)	17 ( 6.39)	18 ( 6.82)	20 ( 7.64)	17 ( 6.86)	
광 고	13 ( 6.50)	20 ( 7.52)	24 ( 9.09)	28 (10.69)	21 ( 8.47)	
기 타	10 ( 5.00)	10 ( 3.76)	20 ( 7.56)	37 (14.14)	19 ( 7.66)	
총 면 수	200 (100)	266 (100)	264 (100)	262 (100)	248 (100)	

[表 6] 한국어린이雜誌內容比較表(1973年 平均에 依함)

항 목 \ 종 류	소 년	새 소 년	소년세계	소년중앙	어깨동무
뉴 스	7 ( 4.86)	4 ( 1.14)	3 ( 0.89)	5 ( 1.55)	4 ( 1.61)
합 습	50 (34.72)	42 (12.00)	41 (12.14)	63 (19.25)	63 (25.4)
문 학	50 (34.72)	44 (12.57)	61 (18.07)	54 (16.76)	40 (16.12)
그림 이야기	—	29 ( 8.29)	22 ( 6.51)	23 ( 7.15)	17 ( 6.86)
만 화	21 (14.58)	186 (53.13)	172 (50.84)	92 ( 28.6)	67 (27.02)
취미오락	7 ( 4.86)	6 ( 1.72)	—	16 ( 4.97)	17 ( 6.86)
광 고	—	14 ( 4.00)	15 ( 4.44)	51 (15.83)	21 ( 8.47)
기 타	9 ( 9.26)	25 ( 7.15)	24 ( 7.11)	19 ( 5.89)	19 ( 7.66)
총 면 수	144	350	338	322	348

## 2. 執筆과 編輯

어린이 雜誌執筆者是 固定되어서는 아니된다. 執筆者의 選定은 그 雜誌의 性格을 形成하며 一貫性 있는 編輯企劃은 優秀한 雜誌를 만드는 것이다. 讀者가 願하는 것을 바로 反映시키고 讀者를 바르게 引導해 주는 것이 雜誌 編輯의 必須條件이다.<sup>32)</sup>

32) 金命燁, 雜誌經營論, 世代, vol.6 no.8, p.322.



「소년」의 筆陣은 兒童文學家 宗教家 慢畫家로 執筆陣이 比較的 밝혀져 있다. 讀者의 興味와 迎合하지 않는 個性과 宗教色彩가 濃厚하나 純粹兒童文學誌에 가깝다. 「새소년」은 文學部門의 執筆陣을 밝히고 있으나 12~15種의 慢畫에는 固定筆陣에 著名한 慢畫家가 거의 없다. 慢畫에 偏重되어 內容多樣的 屬性이 無視되어 있음이 事實이다. 其他 執筆者는 알 수 없다. 以上을 미루어 보건대 大衆娛樂 慢畫誌를 免치 못하고 있다. 「소년세계」는 文學部門의 筆陣이 밝혀져있고 外國名作에는 翻譯者가 省略되어 있으며 學習에서 自然, 社會分野는 執筆者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 慢畫도 大衆慢畫家가 固定된 執筆陣이어서 內容의 多樣성이 憂慮된다. 12月號 連載順 ⑥인 「천사의 별」이 9月號에 그 題目의 慢畫가 없으며, 世界名作인 O. Henry의 「마지막 입세」의 한글 철자의 誤記는 題目이기에 問題가 더 크다. 이것은 編輯校正의 無誠意에서 오는 結果이다. 「새소년」「소년세계」는 讀者가 願하는 것을 反映시키고 讀者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있음이 事實이다. 더우기 「소년세계」의 編輯不在의 現象은 어린이 雜誌의 機能과 屬性을 無視한 處事라고 함이 妥當할 것이다.

「소년中央」은 世界名作에 著者と 作品紹介가 있고 文學에도 筆陣이 明記되어 있으나 社會, 科學에는 筆陣이 明示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10種이나 되는 連載慢畫는 固定筆陣으로 되어있으며 著名慢畫(健全慢畫)家는 거의 없다. 畫報 二面을 넘길 때마다 나오는 原色廣告는 本文보다 華麗한 感이 있다. 讀者와 經營者의 要求를 反映하면서 讀者를 이끄는 힘은 보다 未洽하다. 「어깨동무」는 筆陣이 多様하여 固定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文學과 科學分野는 筆陣이 一部 明記되어 있다. 慢畫는 固定되어 있으나 著名한 作家들의 執筆이고 寫眞小說도 있어 多樣한 編輯을 하고 있다. 雜誌全體에서 풍기는 生動感에 비해 어린이를 이끄는 힘이 不足한 어린이의 綜合誌임이 틀림없다.

全般的으로 어린이 雜誌는 「소년」과 같이 個性을 살리지 않고 類似한 內容을 서로 踏襲하며 Department式的 內容으로 陣列되어서 어린이의 關心을 이끌어 하고 있다. 執筆과 編輯은 雜誌의 教育的, 指導的 機能보다는 娛樂的, 廣告的 機能이 더 強하게 나타나 있다.

### 3. 體裁

雜誌의 體裁는 形態를 말하는 것으로 크기, 印刷, 活字, 製冊으로 나누어

檢討할 수 있다. 雜誌는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體裁가 바뀌어지면서 크기는 一般的으로 A5判(17.5×25.5cm)이나 「소년」만 菊版(15×21cm) 크기이다. 面數는 「소년」이 180面 内外이고 廣告를 除한 面이 「새소년」 335面, 「소년세계」 308面, 「소년中央」 260面, 「어깨동무」 220面이었으나 全體 面이 400面을 넘는다는 것은 어린이의 身體發育과 雜誌가 가볍게 읽는 讀書 資料인 點에서 比較하여 볼 때 너무 지나친 두께이다.

印刷는 「소년中央」「어깨동무」가 上質의 갱지나 모조지, 아트지를 使用하고 있어 色彩나 活字面이 鮮明하고 魅力的인데 比해 「새소년」「소년세계」는 劣品 紙質이었고 漫畫는 貨本所의 것과 같이 뒷 面이 비쳐 讀者의 눈에 困難을 가져오기도 한다. 本文에서 色彩印刷는 廣告보다 低調하고 畫報도 黑白뿐이다. 「소년세계」는 잉크색이 多樣하여 무려 7種이기에 貨本所를 聯想시키는 混雜한 印象을 주고 있다. 이에 比해 「소년」은 中質紙에 印刷도 鮮明하나 原色 畫報가 없고 單色畫報도 지나치게 小規模이며 따라서 不明하다. 原色 및 畫報는 「어깨동무」가 가장 많아 20%가 되고 「소년中央」은 10% 内外이나 原色 廣告를 합치면 「어깨동무」와 같아진다. 이 두 雜誌는 「보는 雜誌」의 體裁를 갖추고 있다.

活字는 大體로 明朝體를 使用하고 一般的 傾向에 따라 「어깨동무」「소년」은 平均 12pt. 「소년中央」「소년세계」는 10pt.이나 趣味와 娛樂, 其他는 9pt나 8pt.이다 活字의 크기는 多樣하고 變化있게 使用되고 있으나 8pt. 9pt.는 成人用 活字로 어린이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크기다. 우리나라 國定教科書 活字<sup>33)</sup> 보다는 아직 작은 狀態이나 過去에 比해 發展的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소년세계」「새소년」의 漫畫는 活字印刷가 아닌 Print의 漫畫도 있다.

雜誌의 製本은 冊子製本이나 호부장의 假製本이다. 面數가 平均 340面으로 두께가 1~2.5cm이다. 雜誌 中間에 半面이나 1/3面이 10~80p 썩 끼어 合本附錄이 있으므로 雜誌의 體裁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루하지 않고 매력 있는 編輯이나 善惡의 着想에 比해 粗雜한 印象을 준다. 面이 裁斷도 안된 狀態이므로 雜誌의 面數를 增加시키는데 貢獻할 뿐이다. 表紙만은 原色印刷

33) 韓國國定教科書의 活字크기 1年(萬6歲) 16~21pt. 3年(萬8歲) 16pt. 5年(萬10歲) 14pt.  
金命澤 op. cit. p.321.

의 高級 모조지로 어린이의 關心을 모으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긴 內容은 華麗한 印刷에 比하여 未洽하다고 看做하는 것이 妥當하다. 以上 調査한 結果를

① 어린이 雜誌의 報道的 機能이 抹殺될 危機에 있으며, news의 平均比가 1.14%로 廣告나 其他보다 적은 點.

② 雜誌의 教育的, 指導的 機能이 微弱하고 記事內容은 論評 解說 書評 등으로 評論의 不毛地이며 單純한 知識情報以外에는 間接 教育活動의 要素를 配慮하지 않는 點.

③ 廣告의 比率이 15.83%로서 學習, 文學에 比해 높고, 經濟的 企業性이 強하여 저속한 大衆誌가 되었고 雜誌의 使命인 文化의 創造, 知識의 傳達이 萎縮되어 있는 狀態이며, 商業的 利潤을 追求하다가 雜誌의 個性도 喪失하고 社會의 信賴도 받지못하는 危機에 處한 點.

④ 內容의 多樣함이 編輯의 越權으로 萎縮되어 있으며, 固定筆陣이 成長發達하는 어린이에게 豐富한 間接經驗을 妨害하고 있고, 지나치게 독자's 要求와 흥미에 迎合되고 있는 點.

⑤ 「읽는 雜誌」보다 「보는 雜誌」의 體裁를 갖추고 있고, 活字도 10~12pt.로 比較的 統一되어 있으며 印刷 製本은 內容에 比해 優秀한 點. 「어깨동무」 6月號에서 原色畫報, 單色畫報, 慢畫, 廣告를 合치면 全體의 58.65%로 名實共히 「보는 雜誌」이다.

## V. 結 言

人間環境이 閉鎖的 地域社會에서 開放社會로 擴大됨에 따라 人間들은 보다 넓은 意味의 mass communication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 mass communication의 media인 雜誌는 一定期間을 두고 號를 거듭하여 여러 사람이 쓴 記事나 論文이 記載된 出版物임이 共通된 概念이다.

어린이가 읽고 學<sup>習</sup>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要求와 興味에 알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讀書資料이다. 이 讀書資料에서 自身에게 必要한 知識情報, 娛樂, 經驗 등을 찾아내는 能力이 있을 때 넓은 文獻世界를 征服하고 複雜한 現社會를 開拓하는 能力人이 될 수 있다.

讀書하므로 獲得하는 間接的인 經驗과 知識은 實生活에서 얻은 것과 對峙될 수는 없으나 多樣하고 豊富한 것을 얻을 수는 있다. 어린이는 비싼 讀書資料 대신 손쉽게 求할 수 있는 것, 圖書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 讀書興味誘發을 위하여 變化있게 斷續 刊行되는 것에 關心을 기울이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것은 매일의 밤상에 vitamin이 있듯이 어린이 讀書資料에서 除去할 수 없는 要素로 어린이 雜誌인 것이다. 1972年 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가 읽고 있는 全讀書資料의 46.28%가 어린이 雜誌이다.

어린이 雜誌란 어린이 成長發達에 必要한 모든 主題를 새롭고 興味로우며 짧게 各 分野에서 固定되지 않은 筆陣에 의하여 記事 繪畫 寫眞 插畫 등으로 꾸며 豫定되지 않은 限界를 가지고 定期的으로 發行하는 mass communication의 一種이다. 無限한 可能性의 時期에 있는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기에 餘暇 時間을 捕捉시키는 單純한 大衆誌보다 多彩로운 內容과 評論批評에 重點을 두는 綜合誌의 性格이 뚜렷해야 어린이 雜誌라 할 수 있다. 即, 娛樂의 廣告의 機能이 指導的 教育的 報道的 機能보다 앞서서는 어린이 雜誌의 屬性이 明白하지 못하다고 본다. 1973年 現在에 刊行되고 있는 人氣있는 어린이 雜誌, 5種은 3, 6, 9, 12 月號를 客觀的 事項에 따라 調査分析하여 보았다.

「소년」은 菊版 크기에 活字는 12pt. 이고 印刷 鮮明, 畫報는 單色이며 不明이나 廣告는 없고 學習, 文學이 34.72%로 一貫性있는 編輯의 個性있는 兒童文學誌이다. 「새소년」은 46倍版 크기에 活字는 10~12pt. 이고 紙質과 印刷가 低調하며 漫畫가 53.13%인 大衆娛樂慢畫誌이다. 「소년 세계」는 46倍版 크기에 活字는 10pt. 이고 紙質과 印刷가 低調하며 特히 잉크색이 粗雜하고 漫畫가 50.48%로 news 0.89%와 比較할 때 編輯不在인듯한 大衆漫畫誌이다. 「소년中央」은 46倍版 크기에 活字는 10pt. 이고 紙質과 印刷가 鮮明 優秀하며 內容이 多樣하게 綜合誌의 面貌이나 廣告가 17.67%로, 學習이 20.15% 文學이 13.95%에 비해 지나치고 原色の 華麗하고 魅力있는 體裁에 대해 編輯의 優秀條件이 缺如되고 企業性이 強하다. 「어깨동무」는 46倍版 12pt. 이고 紙質과 印刷가 鮮明優秀하고 原色畫報가 華麗하며 內容의 多樣性에 주의 깊고 生動感있는 編輯이나 어린이 綜合叢誌의 性格은 아직 弱勢이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 ① 어린이 雜誌의 定期的 報道機能이 抹殺될 危機에 있다.
- ② 雜誌의 教育的 指導的 機能을 編輯에서 正當하게 配慮하고 있지 않다.
- ③ 雜誌의 知識과 情報傳達의 使命感에 比해 經濟的 企業性이 强하다.
- ④ 內容의 多樣性이 萎縮되고 어린이 雜誌의 個性이 漫畫以外에는 뚜렷하지 못하다.
- ⑤ 읽는 雜誌보다 보는 雜誌의 體裁를 갖추고 있다.

## A Survey on Children's Magazines in Korea

Hyo-Jong Kim\*

### <ABSTRACT>

The magazine in modern society is a powerful mass media. Children are generally interested in magazines, which are relatively inexpensive, readily and regularly, and easy to read. The research chose 5 children's magazines published in Korea in 1973 for close analysis. The Sonyon (Youth) was found to be closer to a pure literary reading for children; the Sae Sonyon (New youth) and Sonyonsegh (World of the youth) were purposes oriented toward popular amusement purposes carrying a great number of cartoons; the Sonyon Chungang (Chungang youth) carried too many advertisements; and the Okae Dong Mu (Rear group) was rather weak in contents in fine contrast with its colourful appearanc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generalized from analysis of the five children's magazines published in Korea:

- (1) The function of periodic information dissemination was very weak, feared in danger of being wiped out.
- (2) The educative and guidance function was found rather weak.
- (3) Economic motives seemed stronger in spite of the expressed zeal for missions of magazine.
- (4) In terms of contents variety was lacking, with little individuality for each magazine.
- (5) Generally emphasis was given to pictorial contents rather than to reading articles.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Chung-ang University.